

물질사용자의 관계구조에 관한 목회상담 연구* - 교도소 마약 재소자를 대상으로 -

장 창 민**

1. 서 론

마약을 비롯한 약물 등을 오, 남용하는 것을 물질 사용 장애(substance use disorder)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 약물을 비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약물 오남용 문제와 주사제 약물 남용문제도 가장 심한 국가인 점을 생각해보면 물질사용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기능에 대한 물질의 영향은 인간의 지각, 감각, 감정, 인식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 환각작용¹⁾, 중추신경계를 흥분²⁾또는 억제³⁾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 사용이 위험한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하고, 물질 사용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주위의 모든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이 이미 1만 명 시대를 넘어섰고⁴⁾ 실제 마약 사용자는 적발된 사범

* 본 논문은 2003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학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연세상담소

- 1) 환각제는 지각, 감각, 사고, 자기인식,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서 시간에 대한 감각의 변화, 망상, 환상 등을 유발하여 환시, 환청, 환촉, 환취 등을 일으킨다. 널리 알려진 환각제로는 대마초(Marijuana, Happy smoke),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PCP(Phencyclidine) 등이 있다.
- 2) 중추신경흥분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인체를 보다 활력 있게 해주는 물질이다. 이 약물을 사용하면 안정감이 없어지고 수다스러워지며 불면증에 걸리기 쉽다. 흥분제에는 카페인(Caffeine), 니코틴(Nicotine), 코카인(Cocaine), 암페타민(Amphetamine) 등이 있다.
- 3) 중추신경억제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지만 흥분제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갖는 물질이다. 즉 호흡, 혈압, 심장박동과 세포의 신진대사와 같은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아편(Opium)계열 마약, 바비튜레이트(Barbiturates) 계열의 진정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그리고 술 등이 이에 속한다.
- 4)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도부터 마약류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1980년에 비해 14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관세청이 2001년 압수한 마약류 밀수품은 4259억원 어치로 2000년

의 20~40배로 볼 수 있다는 기사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사회에서 마약에 대한 문제를 비롯한 물질사용에 대한 문제가 음지에 가려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2002년 줄줄이 이어진 연예인 마약 사용 사건과 최대규모의 마약 밀수 검거 사건 등은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질 사용에 대한 인간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연구로는 김정빈(1997: 209-233)이 약물남용과 가족의 역기능에 대해, 윤명숙(1997)은 남편의 단주와 부부 관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연구로는 현명선(1996)이 물질사용 장애 청소년의 회복과정에 대해, 박은영(1998)이 청소년 약물남용자의 애착현상을 통한 친구관계에 대해 그리고 최은영(1998)이 약물남용 청소년의 인간관계를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선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물질사용자들이 물질 사용에 이르게 되는 요인을 대상관계이론에 입각하여 관계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문들이 물질 사용의 원인을 생물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등 독립된 관점에서 연구하던 폐단을 극복하여, 물질 사용에 대한 다양한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물질 사용에 대한 기존의 논문들이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특별히 인간관계 경험에 대해 탐색해야하므로 아직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관찰을 통하여 현상의 기저에 있는 것을 들추어내고 이해 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근거이론 방법론은 그 현상에 적합한 개념들을 경험적 자료로부터 발견하여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물질사용자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에 적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2. 이론적 고찰

1) 대상관계 이론

“대상”은 타자, 즉 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의미 있고 개인의 외적환경 안에 있는 개인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대상관계라는 말은 한 개인이 실제로 사람들과 맺는 관계(external object)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세계가 맺는 내적 대상(internal object)과의 관계 그리고 그 내적 대상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들이나 이론들의 측면을 가리킨다.(Michael, St., 1998: 13, 31) 그러므로 ‘대상’이라는 개념은 ‘내면’과 ‘외부’사이의 교류를

보다 12배나 늘어날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다고 한다.(대검찰청, 2002: 참조)

묘사하는 데에 유용하며, 특정한 타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타자까지 포함하는 용어이기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을 포괄할 뿐 아니라, 심리내적인 작용으로 인해 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내면화된 대상은 실재하는 대상과 다를 수도 있다. 대상관계에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Self)는 자아라는 개념보다 더 다양한 개념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외적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정신기능의 조직자로서 사고와 판단 및 통합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서 관찰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신세계의 이미지들과 표상들은 항상 대상의 전체(Whole of Object)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의 한 부분만을 표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 대상(Part Object)은 대개 대상이 그것을 주관적으로 좋게 경험하느냐 나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어느 한 쪽 속성만을 표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족시키고 좌절시키는 그 자체의 능력의 견지에서 대상을 보는 것은 대상을 전체 대상(Whole Object)으로서 보는 것이다. 또한 자기대상(Self Object)은 자기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유아기 부모를 타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분 또는 자신의 확장으로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로 대상은 내적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표상(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자기표상(Self Representation)이란 아이의 환경 안에 있는 대상이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경험되어짐으로써 되어지는 자기의 정신적 표현이다. 이는 한 개인이 어떻게 타인과 관계하고 대응하는지를 결정한다. 대상표상은 자기가 아닌 타자에 대해 자아가 형성한 많은 인상, 이미지, 경험들로 이루어진 지속성을 지닌 정신적 도식이다. 이것이 확고해지고 확대 발달되면서 일관된 현실적, 심리적인 대상 세계의 표상들로 형성된다.

네 번째로 구조란 정신분석에서 원본능, 자아, 초자아 개념들과 다양한 정신 과정들, 그리고 관계방식들까지 포함해서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조직화되고 안정화된 정신과정과 기능들에 대한 개념들이다. 기존의 정신분석가들은 본능과 감정들을 강조하지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내사와 동일시를 더욱 중시하는 편이다. 내사와 동일시는 자아 주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를 형성해가는 초기발달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섯 번째로 내사(Introjection)란 정신과정 세계와 타자들 간의 부분들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투사(Projection)는 내 안에 어떤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로 전가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깨지기 쉬운 인성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는 자기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엄마의 좋고 나쁜 면들의 상충되는 감정들을 따로 유지하기 위해 분열을 사용한다. 이러한 분열은 좋고 나쁜 면들을 내사적 동일시(Introjection Identification) 또는 투사적 동일시(Projection Identification)를 통해서 전적으로 좋음과 전적으로 나쁨으로 구분하게 된다.

여섯 번째로 자아 정체성(Ego Identity)은 아이 자신의 ‘절대적인 동일성’과 ‘개인성’에 대한 감각으로 아이의 인지 능력과 지각 기술이 증가하고 자아가 발달하면서 내사한 내부의 대상들을 점차로 통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이미영, 2000: 참조)

2) 연구방법론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의 연역적이면서 양적 방법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귀납적이면서 질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Mar, R., 1996) 질적 연구 방법은 원자료를 통하여 개념과 관계를 발견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한 도식으로 조직하는 것으로서 보다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특정한 관계, 활동, 상황의 상세한 면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 연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Sten, 1980).

질적 연구에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인류지(ethnography),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자연주의적 관찰(naturalistic observation), 현장 조사(field research), 현상학(phenomenology), 사례연구(case study), 역사적 방법(historical method), 행동 조사(action research) 등이 있다.(김영중, 2000) 그 중에서 본 연구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 수집, 분석, 그리고 최종 이론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연구자는 한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며 이론이 자료로부터 생성되도록 한다. 자료로부터 나온 이론은 경험에 근거하여 더 ‘현실’을 닮는 경향이 있다. 근거이론은 자료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직관력을 제공하며, 이해를 강화하고, 행동을 하는데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해주는 경향이 있다.(Anselm Strauss and Juliet., 1990)

본 연구는 특별히 스트라우스(Strauss)와 코빈(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코딩(coding)과정에 상담학의 수퍼비전(연구자 이외에 상담사, 사회복지사, 마약전문가 참여)을 통하여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과정(process)분석에서는 집단진행 기록지를 활용하였고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통합하여 기틀을 제시하는 상황 모형(condition matrix)에서는 연구자가 새롭게 개발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마약류 사용으로 ○○○교도소 복역 중인 재소자들 가운데 복역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으며 집단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총 9명을 ○○○교도소 교무과에서 선발하여, 2002년 10월 24일부터 2003년 2월 14일까지 총 12회의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를 재소자로 선정한 이유는 그동안의 물질사용에 대한 연구들이 대상자 접근이 쉽지 않은 이유에서 성인들에 대한 연구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물질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일반 약물이나 물질보다는 마약사용자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하여 회복 이후에 마약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데보라 선교사와 안미영 선교사 그리고 신용원 목사님의 강의와 면담을 통하여 마약류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교육받았으며, 마약관련 센터와 상담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특별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상담사로서 활동하면서 물질사용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면담을 통하여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2002, 3년 마약류 상담전문가 심화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1년여 동안 각종 세미나와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마약전문 상담가로서 훈련을 받았다. 이밖에도 2년여 동안 상담사로서 전화, 인터넷, 면접 상담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연세의료원에서 임상목회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상담사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으며, 비행청소년 교육 분야에서의 활동 경력과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 및 복지단체에서 실습 및 활동을 했던 경험과 프로그램 설계 경력 등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집단상담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집단상담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1달간의 집단 프로그램에 코리더로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예비 면접을 실시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집단상담은 연구자가 리더가 돼서 ○○○교도소 내에서 실시하였으며 상담 내용은 법무부 교정국과 교도소장의 허락 하에 녹음을 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가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테이프를 교도소에 반납하여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방법으로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원자료화) : 자료 분석방법은 집단상담을 녹음한 자료를 축어록으로 필사한 후 데이터화하여 원자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한 사례 당 A4용지로 15에서 25장 사

이었고, 총 254장 분량의 축어록이 분석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2단계(원자료의 속성과 개념의 명명화) : 축어록의 내용에 따라 그 현상에 대한 “속성과 개념(concepts)의 명명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개방 코딩에 속하는 작업으로서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통해 범주에 신경 쓰지 않고 객관적으로 명명하기 위하여 연구자 이외에 또 다른 분석가에게 의뢰하여 상호 명명화한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3단계(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 : 명명된 자료를 동일한 범주에 귀속시키는 과정으로서 동일한 개념들을 묶고 다시 비슷한 속성들을 지닌 개념들을 묶어서 범주를 형성했다. 이렇게 추출한 범주들을 다시 원자료와 비교하며 대상관계적 관점에 의거하여 상위 범주로 묶어갔으며, 마지막으로 사례에 적혀진 개념과 범주들이 상위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적합하게 묶였는지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 단계인 패러다임 형성과 연구결과에 따른 근거이론 제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되었다.

4단계(중심현상의 패러다임 형성) : 본 단계는 축 코딩에 속하는 작업으로서 분석된 범주들은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에 의해 재배치되었다. 기존의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연구의 핵심주제인 중심현상을 가져온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context), 중재 조건(intervening condition), 그리고 상호작용전략(action/ interaction)과 결과(consequence)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패러다임 모형은 전체적으로 인과적 모형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심현상과 결과가 일어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원인-결과라는 단편적인 설명은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연구를 통해 발견된 현상이나 관찰된 범주들 간의 상관관계와 상호교류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자는 연구 방향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원자료를 분석하는 중에 물질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사용하게 된 인과적 상황과 물질 사용을 끊지 못하는 상호작용 상황을 패러다임에 포함하게 되었다.

5단계(연구결과에 따른 근거이론) : 본 단계는 사례 이야기의 흐름과 개요를 파악하면서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동안 범주의 속성과 차원 사이에서 반복되는 관계들인 “유형(pattern)”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는 근거이론의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해당되는 분석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윤곽을 통해 핵심 범주를 찾아내고, 유형을 발견하여 본 연구의 근거이론으로서 제시하려 한다.

6단계(물질사용 분석) : 물질사용 분석 단계는 연구자가 새롭게 시도한 단계로서 중심현상에 대한 패러다임 형성과 근거이론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물질사용 과정을 분석해보는 단계이다. 본 과정을 통하여 물질사용에 대한 요인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된다.

7단계(과정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집단상담 진행 기록(group process recording)을 자료로 사용하여 과정 분석을 하였으며 과정 분석을 통하여 집단상담 진행에 따른 집단원들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게 된다.

<표 1>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 및 과정

회기	날 짜	단 계	프로그램	내 용	목 표	준비물
1	10월 24일	집단형성 (관계형성)	오리엔테이션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이름표 붙이기	자신의 별명으로 이름표를 만들고 소개하기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돌아봄	명찰, 펜
			‘나’ 바라보기	내가보는 나의 모습과 남이 보는 나의 모습 알아보기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이해함	
2	10월 31일	자기이해	MBTI	성격유형검사	자신을 알아가고 타인을 이해하기	MBTI검사지, 펜
3	11월 7일	관계형성	Social Atom	종이 위에 자신의 관계성을 표시	자신의 관계성을 돌아봄	도화지, 펜
			가족 이야기	Social Atom을 통하여 가족 소개하기	자신의 관계성 안에서 가족을 생각함	
4	11월 15일	관계이해	오리엔테이션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이름표 붙이기	자신의 별명으로 이름표를 만들고 소개하기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돌아봄	명찰, 펜
5	11월 22일	자기수용	나의 모습 돌아보기	과거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봄	나의 모습을 알아봄	
6	11월 29일	관계수용	의미 있는 사람 소개하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소개하기	경청과 공감 능력 습득	
			의미 있는 경험 나누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기	경청과 공감능력 확대	
7	12월 13일	관계인식	가족에 대한 경험 나누기	가족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아봄	경청과 공감능력 확대	
			유사점 차이점 찾기	집단원 중에서 자신과 유사점과 차이점 있는 사람 찾기	지각력과 이해력 기르기	
8	12월 27일	자기인식	자기 노출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함께 나누기	자기 노출을 경험하고 공감능력 기쁨	
9	1월 10일	관계경험	나와 약의 관계 찾기	자신에게 있어서 약을 하게 되는 상황을 분석	약을 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분석	
10	1월 24일	자기성장	자존감 향상 훈련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랑스런 모습을 발견하고 칭찬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	
11	2월 7일	관계성장	관계망 찾기	단약을 위한 자원 및 지지 환경을 찾아 관계 맺기	좋은 관계들을 찾아 자원으로 활용	
12	2월 14일	자기와 관계의 성숙	평가	집단상담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기	집단 안에서 의미 있는 행복을 경험	

4) 연구의 한계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연구이므로 비재소자들에 비하여 부정적인 사고나 피해의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여성 물질사용자들에 대하여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소수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질적 연구이므로 종교, 출생 순위, 가족 관계, 결혼 유무, 거주지역 등의 다양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밝히려고 한다. 이밖에도 대상자들의 출신지는 특정 지역이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이 고루 포함되었으나 교정단체의 특성상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수도권이나 남 지역 거주자들로 구성되었다.

4.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⁵⁾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9
이름(별명)	창	박 쥐	황 소	강아지	제임스 딘	만 두	불 곰	우 황	제임스
연령	35	35	42	50	34	29	35	34	32
종교	불교	무교	기독교	불교	불교	기독교	무교	기독교	무교
학력	고졸	중졸이하	고졸	중졸이하	고졸	대졸	중졸이하	고졸	고졸
직업유무	무	무	농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운수업	자영업	선원 자영업
거주형태	부모와 동거	독립	부모와 동거	독립	독립	부모와 동거	독립	독립	부모와 동거
사용물질	필로폰	필로폰	필로폰	대마/ 필로폰	필로폰	필로폰	필로폰	필로폰	필로폰
처음사용나이	25	34	26	25	30	26	32	25	20
처음접한경로	친구		친구		후배	선배		이는 사람	외국 여행
사용빈도	거의 매일	한달에 한두번	한주에 한두번	기타	일년에 한두번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거의 매일	일년에 한두번
사용형태	기타	혼자	기타	기타	여러명	여러명	혼자	혼자/ 여러명	혼자

5) 집단상담의 묘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례에 제시한 이름들은 모두 집단상담 중에 불렀던 별명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 근거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

근거자료의 속성들을 분석한 결과 ‘갈등’, ‘강박적 사고’에서부터 ‘합리화(정당화)’와 ‘회피(인정하지 않음)’에 이르기까지 총 60개의 개념이 나왔으며, 개념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범주화 작업을 한 결과 ‘갈등’, ‘강박적 사고’로부터 ‘환경’과 ‘회피’에 이르기까지 총 20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3) 근거자료 개념 및 범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분석

근거자료가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속성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면 축 코딩 단계에서는 범주들을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연관을 짓는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자료를 분석한 60개의 개념과 20개의 범주들을 자기와 관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인과적 상황(물질을 사용하게 된 요인), 상호작용 상황(물질을 못 끊는 요인), 치료적인 현상인 중심현상의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1>의 패러다임 모형으로 나타났다.

< 자기의 영역 >

상호작용 상황	
갈등	1. 갈등 15. 두려움
안정 욕구	48. 전능감
우울	49. 절망(좌절)
욕구충족적인 행동	26. 색다른 경험 추구 58. 쾌락 추구
자신감 부족	17. 무기력 43. 자신감 부족
통제력 상실	46. 자포자기 25. 사고력 저하
회피	16. 망각 27. 습관화 44. 자제력 상실 11. 기대하지 않음 20. 변화에 무감각

중심 현상	
자기	사고의 전환 자기 성장
관계	관계 성장 관계 형성 안정된 환경
	10. 긍정적 사고36. 이성적 사고 39. 자기 노출 41. 자기 성장 47. 적극적 참여 6. 관계 성장 8. 관계 형성 28. 안정된 환경 50. 종교(신앙)

< 관계의 영역 >

인내적 상황	
갈등	22. 부담감
방어적인 행동	19. 방어적
상실	13. 대상의 부재
안정 욕구	31. 역할의 부재 7. 관계 욕구
열등감	33. 우울감
의존 욕구	32. 열등감
인정 욕구	18. 밀착된 관계 35. 의존 욕구
환경	5. 과장(과시) 29. 애정 욕구
회피	37. 인정 욕구 38. 이탈된 환경 56. 친구(약 사용자) 55. 책임감 부족

상호작용 상황	
방어적인 행동	3. 경계
분노	34. 의심 21. 보상심리
안정 욕구	24. 분노 14. 동일시
열등감	30. 애착
우울	52. 죄책감
욕구충족적인 행동	4. 고립 54. 집착

< 시간의 영역 >

인외적 상황	
강박적인 사고	2. 강박적인 사고
방어적인 행동	9. 극적인 변화
안정 욕구	59. 합리화 12. 능력 갈망
욕구 충족적인 행동	40. 자기대상 52. 중독 현상
자신감 부족	42. 자기중심적 사고 53. 즉흥적(무계획)
회피	42. 부정적 사고 45. 자존감 부족 60. 회피

<그림 1> 물질사용자의 관계구조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4) 물질사용자의 관계구조에 관한 근거이론 제시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통해 밝혀진 핵심범주를 통하여 이야기를 개념화 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핵심범주에 따라 사례들을 유형화하였다.

(1) 이야기 윤곽(story line)

핵심범주를 종합하여 볼 때, 물질사용자들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요인에는 갈등이나 대상의 부재, 역할의 부재와 같은 상실, 열등감, 인정욕구, 이탈된 환경, 회피 등과 같은 관계의 영역이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고, 물질 사용이후부터는 전능감이나 욕구충족적인 행동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색다른 경험이나 쾌락과 망각, 습관화와 같은 통제력 상실과 무기력 등의 자신감 상실 등 자기의 영역이 물질사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물질 사용자의 “자기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을 통한 성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 마약 제조자들의 물질 사용을 완화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는 “자기의 인식과 관계의 경험을 통한 자기와 관계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인식과 관계 경험을 통한 자기와 관계의 성숙”은 물질로부터의 회복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 되기도 한다.

(2) 유형화

유형화 과정에서는 상담학의 사례분석과정을 접목시켜 핵심범주인 “자기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을 통한 성숙”을 바탕으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유사한 형태들로 유형화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고 이야기 윤곽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집단상담을 통하여 나타난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묶었으며 이러한 유형화 작업이 집단원들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었다.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집단상담에 참여한 마약 제조자 9명 중, 자기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는 창(사례1), 황소(사례3), 제임스(사례9) 이상 3명이었으며, 자기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경우는 제임스 딘(사례5)와 우황(사례8) 이상 2명이었고, 관계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경우에는 만두(사례6) 이상 1명이 있었다. 그 밖에 강아지(사례4)와 박쥐(사례2)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약물(대마초)사용과 초범이라는 이질감으로 인하여 집단상담 안에서 자신의 노출을 허용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관계 경험에 주력하기보다는 집단 안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주력함으로써 객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힘들었으며, 불곰(사례7)의 경우에는 집단상담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자기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 집단상담과 무관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유형 1은 물질사용자의 “자기 인식과 관계 경험을 통한 자기와 관계의 성숙” 유형
- (2) 유형 2는 물질사용자의 “자기 인식과 관계 경험을 통한 자기의 성숙” 유형
- (3) 유형 3은 물질사용자의 “자기 인식과 관계 경험을 통한 관계의 성숙” 유형

5) 근거자료에 의한 물질사용 분석과 과정 분석

근거이론에서는 코딩 단계 이후에 과정분석 단계를 통하여 변화에 대하여 추적해 보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계구조에 의한 ‘물질사용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물질사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물질사용과 중독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상담 안에서의 집단원들의 변화를 과정분석 하였다.

(1) 관계구조에 의한 물질사용 분석

본 과정은 연구자가 새롭게 시도한 과정으로서 물질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사용과 중독’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연구의 핵심범주인 관계구조에 의해 분석하였다. 관계구조에 의한 물질사용 분석에서는 유형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을 사용하게 된 인과적 상황과 물질사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호작용 상황을 통합적인 방법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관계구조에 의한 물질사용 과정과 중독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림 2>와 같이 물질사용자들에게 ‘대상/역할의 부재’는 물질사용 문제의 발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질사용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신이상자’ 또는 ‘벌레와 같은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호소를 많이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냉대 이전에 이미 가족들로부터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래 대상이란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 사물 또는 신체적 일부로서 자기의 형성과 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비롯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가족들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에게서 적절한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나 가족들을 엄격하고 무서운 이미지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사례1 : 창, 사례6 : 만두, 사례9 : 제임스), 부모나 가족들 중에서 한사람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사례1 : 창, 사례8 : 우황, 사례9 : 제임스), 이러한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물질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대상/역할의 부재는 물질사용이후부터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여 가족들로부터 의심받는 대상, 고립되는 위치에 있게 되면서 방임 또는 심한 간섭의 대상으로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다.

세로 표

<그림 2> 관계구조에 의한 물질사용과 중독 과정

이와 같은 대상/역할의 부재는 이들에게 심한 좌절과 고립을 경험하게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자기대상을 형성하도록 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에게서 자기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으며(사례1 : 창, 사례8 : 우황), 이러한 방어적인 모습을 통해 자신의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받지 못한 관심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투사하면서 안정, 의존, 인정욕구를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이들이 물질사용이라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 되었을 때, 물질사용자들과 쉽게 어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물질사용자들은 다른 대상으로부터 친밀감을 형성하지만 이러한 친밀감은 좋은 대상관계나 좋은 역할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막연한 애착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불법적인 일이나 물질사용이 나쁘다는 문제의식보다는 애착을 느끼는 다른 대상들로부터 좌절이나 소외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애착을 느끼는 대상과의 분리불안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불법적인 일이나 물질사용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물질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경험과 자기 충족적인 느낌을 갖게 되며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물질중독자는 약 사용이라는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고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의지대로 안 되거나 일이 뜻대로 안될 경우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느끼면서 괴로움을 잇는 수단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포기한 채 다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물질사용은 성 중독이라는 이중 중독을 경험하게 하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일 중독, 관계 중독이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물질사용의 과정이 악순환 되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갈등은 물질사용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으며, 물질에 대한 내성은 더 많은 양의 물질 사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물질사용과 쾌락추구적인 생활은 자제력을 잃고 물질 앞에서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가게 함으로써 물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죽기위해서 물질을 과다 복용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물질사용 과정’을 대상/역할의 부재와 물질사용, 물질중독, 이중 중독이라는 경험, 내재화 그리고 현상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물질사용과 중독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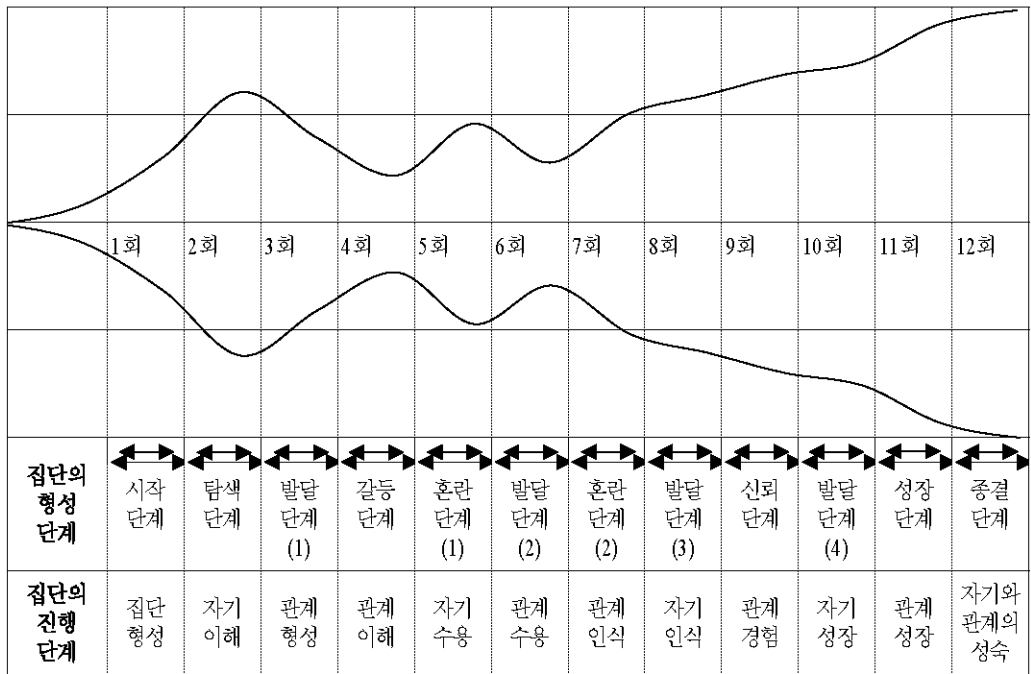
물질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대상/역할의 부재라는 경험은 좌절을 통하여 고립을 내재화 시키면서 안정/의존/인정 욕구를 강화시켜 다른 대상이라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었으며, 다른 대상이라는 경험은 애착을 느끼게 하여 분리불안을 내재화시키면서 일탈상황을 만들어 물질사용 현상을 가져왔고, 물질사용은 두려움을 강화시키면서 절망이라는 내재화를 통해 자포자기에 의한 물질중독 또는 이중 중독이라는 현상을 가져왔으며, 물질중독 혹은 이중 중독이라는 경험은 내성을 만들면서 쾌락추구의 내재화를 통해 자제력상실에 의한 이중 중독 또는 물질중독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대상/역할의 부재, 다른 대상, 물질사용, 물질중독(약물중독)이라는 경험은 고립, 분리불안, 절망, 쾌락추구를 내재화시키고 있었고, 다른 대상, 물질사용, 물질중독(이중 중독), 이중 중독(물질중독) 현상을 가져오고 있었다.

(2) “자기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을 통한 성숙”의 과정 분석

근거이론에서 과정 분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개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되는 연결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집단상담 진행 기록(group process recording)을 자료로 과정 분석을 하여 “물질사용자의 관계구조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집단상담 진행에 따른 변화과정으로 나타내었다.

6) 물질중독과 이중 중독 현상은 사례에 따라 물질중독이후에 이중 중독(특히 성 중독)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중 중독으로 인하여 물질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물질중독과 이중 중독 현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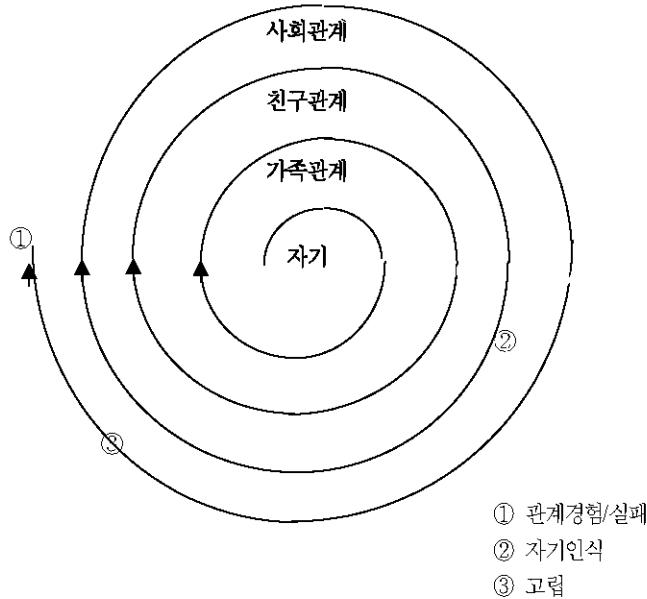
<그림 4> 물질사용자의 “자기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을 통한 성숙” 과정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진행과정에 의하여 집단의 형성 단계를 8단계(시작단계, 탐색단계, 발달단계, 갈등단계, 혼란단계, 신뢰단계, 성장단계, 종결단계)로 나누었으며, <그림 4> 물질사용자의 “자기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을 통한 성숙” 과정에서는 집단의 형성 단계와 집단의 진행 단계를 함께 나타내었는데, 좌에서 우로의 과정은 집단상담 회기진행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프는 집단상담 진행에 따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집단원들이 집단상담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래프의 증폭을 넓게 나타내었고, 갈등이나 혼란이 생기는 경우에는 증폭을 좁혀서 나타내었다. 즉 그래프의 증폭이 심한 경우 집단원들에게 새로운 현상이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물질사용자의 자기 인식과 관계 경험을 통한 성숙과정”에 대한 상황 모형

상황 모형(Condition Matrix)은 연구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다양한 종류의 상황조건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사용자의 관계구조”를 <그림 5>에서와 같이 자기,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사회관계의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자기와 관계의 영역을 관계 경험/실패, 자기 인식 그리고 고립이라는 기능으로 설명하면서 “물질사

용자의 자기 인식과 관계 경험을 통한 성숙과정”에 대한 상황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 그림 5 > “물질사용자의 자기 인식과 관계 경험을 통한 성숙과정”에 대한 상황 모형

5.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는 물질사용자들의 자기와 관계에 관한 것을 탐구 및 분석하여 물질사용자의 관계구조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개발하였다. 물질사용자의 관계구조는 물질사용자들을 이해하고 물질사용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실제이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물질사용자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갈등’, ‘강박적 사고’에서부터 ‘합리화(정당화)’와 ‘회피(인정하지 않음)’에 이르기까지 총 60개의 개념으로 정리 할 수 있었으며, 유사한 개념들끼리 묶는 범주화를 통하여 ‘갈등’, ‘강박적 사고’, ‘관계 성장’, ‘관계 형성’, ‘방어적 행동’, ‘분노’, ‘사고의 전환’, ‘상실’, ‘안정 욕구’, ‘안정된 환경 형성’, ‘열등감’, ‘우울’, ‘욕구 충족적인 행동’, ‘의존 욕구’, ‘인정 욕구’, ‘자기 성장’, ‘자신감 부족’, ‘통제력 상실’, ‘환경’, ‘회피’의 총

20가지의 범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물질사용자들이 자기에 대한 문제와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요인에는 관계의 영역이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고, 물질 사용이후부터는 자기의 영역의 문제들로 물질사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질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을 때 “자기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을 통한 성숙”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물질 사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형태는 “자기의 인식과 관계의 경험을 통한 자기와 관계의 성숙”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물질 사용을 유발하는 인과적 상황과 물질사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호작용 상황을 자기에 대한 영역과 관계에 대한 영역으로 나누어 범주와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 집단상담을 통한 물질사용자의 성숙을 “자기의 인식과 관계의 경험을 통한 자기와 관계의 성숙”, “자기의 인식과 관계의 경험을 통한 자기의 성숙”, “자기의 인식과 관계 경험을 통한 관계의 성숙”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물질사용자의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물질사용과 중독과정을 도출하고 상황모형을 만들 수 있었는데 물질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대상/역할의 부재, 다른 대상, 물질사용, 물질중독(약물중독)이라는 경험은 고립, 분리불안, 절망, 쾌락추구를 내재화 시키면서 다른 대상, 물질사용, 물질중독(이중 중독), 이중 중독(물질중독) 현상을 가져오고 있었으며, 자기와 관계 영역 안에서 자기인식과 관계경험을 통해 외부와의 관계로 자기를 확장할 수도 있었고, 관계 실패로 인하여 고립이나 다른 관계로 이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목회상담적 제언

많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회 현상을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줄 모르고,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타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가리켜 자기의 인식을 상실한 시대라고 해야 좋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의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족 시스템 안에서 친밀감(intimacy), 의존감(dependency) 그리고 책임감(accountability)의 세 가지 과정(Lewis, B., 1993)이 분리 되지 않

고 함께 작용해야 하는데(James, M., 1990) 자기의 인식의 확립은 자기를 돌보는 양육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곧 부모의 자기확립의 형태는 자녀가 건강한 자기의 인식을 확립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자기는 타인과의 관계와 이러한 관계의 인식을 통하여 만들어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양육자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의 부재와 관계의 결핍은 자기의 인식을 상실하거나 자기의 인식을 결핍시켜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도 실패하게 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자기의 인식에 대한 문제와 관계에 대한 문제는 좌절에 의한 고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정/의존/인정 욕구를 강화시키게 되고 이와 같은 욕구는 자기 대상을 통하여 해소하게 되는데,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은 좌절과 수치감(죄책감) 그리고 공허한 욕구까지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우리 사회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중독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독 현상은 좀더 자극적인 것, 좀더 즉흥적인 것 그리고 좀더 일탈적인 것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물질사용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범죄 중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잘못된 자기 인식에 대한 문제와 결핍된 관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좌절과 고립을 경험한 물질사용자들을 사회로부터 더욱 좌절시키고 고립시키는 악순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한 문제와 관계에 대한 문제로 인한 물질사용의 문제는 인간이 선악과라는 물질을 따먹는 원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이 범하기 쉬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성으로 극복하기 힘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물질사용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물질사용자들의 부적응과 부조화를 도와 적응과 조화로 이끌어주는 것 말고도 목회상담적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인식과 관계에 대한 경험에 의한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고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지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경험토록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질사용자에 대한 목회상담적 기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경에 나타나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좇아가며 예수님의 상담자적 자세와 기법에 대하여 살펴본 후 물질사용자의 상담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1) 핵심문제의 통찰과 적극적인 지지 : 니고테모와의 대화(요 3장 1~21절)

니고테모는 유대인의 관원(官員)으로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은 믿지만 자신이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

에 대한 궁금증을 묻게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의 표면적인 궁금증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핵심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은 있지만 용기를 갖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의 믿음을 지지해 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물질사용자들도 물질사용이라는 표면적인 문제 이면에 근본적인 핵심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사실 물질사용이라는 문제는 표면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담자의 경우에 물질사용이라는 특별한 현상에 초점을 빼앗긴 나머지 “왜?” 또는 “어떻게?”라는 물음에만 연연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호기심을 풀려고 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고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고립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물질사용자들은 물질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방어기제로 삼게 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물질사용자에 대해 “왜?”보다는 “무엇 때문에?”라는 물음으로 그들을 이해하여야 하며 물질사용이라는 표면적인 문제에 가려진 핵심문제를 통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물질사용자들이 물질사용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에 감추어진 그들의 문제들을 하나, 둘 꺼내어 놓을 때마다 상담자는 그들의 아픈 상처를 내어놓는 용기에 대해 칭찬과 지지를 해줌으로 그들의 노출하는 모습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고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강화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2) 안아주는 환경을 통하여 수용과 공감 : 향유(香油)를 부은 죄인인 여인과의 만남(눅 7장 36~50절)

‘죄인인 한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르는 사건이 있다. 함께 있는 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좋게 보지 않게 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의 모든 행동을 받아주시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앉은 자들 앞에서 여인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시게 된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녀의 핵심문제에 지시적으로 접근하시지도 않으신다. 단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그대로 수용해주실 뿐만 아니라 끝없는 공감과 지지를 통하여 그녀의 의아한 행동까지도 정당화 시켜주신다. 곧 예수님께서서는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와 행한 행동들로 인하여 그녀 스스로 자신의 핵심문제를 통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수용과 공감 그리고 지지를 통하여 이 여인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싸주신 것이다.

상담자로서 우리는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문제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죄책감과 수치심에 괴로워하는 내담자를 종종 만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상담자들은 이러한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듣기 위해서 답답해하거나, 기다려

주지 못하고 지시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목회상담자는 수용과 공감을 통해 그들을 수용할 줄 아는 안아주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물질사용자들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은 그들을 고립시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만나 상담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깊은 마음까지도 어루 만져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목회상담자에게는 그들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아주는 가슴(holding environment)과 어루 만져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 이처럼 목회상담자가 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문제에 상담자를 초대하게 된다. 곧 물질사용자를 상담하는 목회상담자는 그들의 문제에 초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수용과 공감은 상호작용적인 것으로서 목회상담자가 내담자를 수용하고 공감하게 될 때 내담자 역시도 상담자를 수용하고 그의 상담에 공감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공감과 수용의 관계 경험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공감하고 수용할 줄 아는 ‘공감하는 자기(empathizing self)’와 ‘수용하는 자기(accepting self)’로 성숙하게 된다.

(3) 문제로부터 분리와 전환(반전), 메타커뮤니케이션(metacommunication) 및 자기반추(Self-reflective) : 간음(姦淫) 중에 잡힌 여인(요 7장 53절~8장 11절)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등장하게 된다. 이 일은 여인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전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받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 인들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자이심을 보여주시는 부분이기도하다.

예수님은 그의 판결을 기다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 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게 된다. 곧 예수님께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판결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 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반전(전환)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시험하고 여인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관점을 문제로부터 분리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무리들에게는 여인의 판결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이 전경(figure)(Wayne, Viney., 1993)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자기반추를 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의 판결을 기다리는 무리들의 관점을 문제로부터 분리하신 후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게 된다. 곧 여인의 죄에 대하여

판결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죄도 판결하지 않으신 것이며, 여인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곳에 모인 모든 무리의 죄까지도 용서하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려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은 간음한 여인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님은 판결이 아니라 용서를 통한 사랑과 은혜로써 문제 상황을 상담적으로 치유하시게 된다.

이와 같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문제에서 모든 사람들의 율법적인 관점을 문제로부터 분리하시고 문제상황을 반전(전환)시키시며 말씀보다는 메타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고 자기반추(Self-reflective)(Irvin, Yalom, 1993)를 통하여 자신을 통찰하게 하신 위대한 상담사례를 보게 된다. 또한 한 여인의 문제 상황을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반추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집단 안에서 막연한 문제의 노출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기 반추를 통한 자기성찰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물질사용자들을 율법적 혹은 법적인 죄인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인하여 그들을 더욱 정죄하고 소외시켜서 물질사용이라는 문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재범률이 높아지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목회상담자로서 물질사용자들을 만날 때 그들은 죄인으로서 상담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만약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에 문제와 분리하여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상담자도 이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물질사용자를 상담하는 목회상담자는 말로써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메타커뮤니케이션⁷⁾을 통하여 가슴으로 느껴지는 상담자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가슴으로 전달해오는 의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물질사용자들은 심한 두려움과 자기방어는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말로써 표현하는 의사표현보다는 메타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목회상담자가 물질사용자와 메타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사교류가 가능할 때 물질사용자는 목회상담자를 신뢰하고 자기 노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곧 이러한 신뢰의 경험은 물질사용자를 '신뢰하는 자기(trusting self)'로 성숙하게 한다.

7) 메타커뮤니케이션(metacommunication)이란 말이 아닌 시선·동작·몸짓·태도 따위에 의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즉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데, 상호 작용하는 두 사람간의 관계의 본질에 따라 메시지가 있다.

(4) 관계경험과 희망고취 : 십자가 함께 못 박힌 강도(強盜)(눅 23장 39~43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달린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 아마도 이 강도는 비록 강도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짐작케 해준다. 하지만 이 강도가 다른 이들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그와 함께 달린 예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계 맺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핵심 문제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의 믿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의지’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을 통하여 “네가 나와 함께” 곧 예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시게 된다. 또한 “오늘”이라는 즉각적인 표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표현으로 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희망에 대한 고취로 바꿔주시게 되는 것이다.

물질사용자는 자기인식과 관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한 자기 인식과 관계 경험은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상담 상황 안에서의 관계 경험을 상담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내담자인 물질사용자에게 희망을 고취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한 강도를 온전히 수용하시면서 그와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상담자는 물질사용자와 관계 맺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거져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상담자와의 희망고취적인 관계는 물질사용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적 자기(hopeful self)’로 성숙하게 한다.

참 고 문 헌

- 강병도. 1989. 『툼슨대역 한영성경』. 서울: 기독지혜사.
- 김경빈. 1997. “약물남용 및 약물중독 청소년의 조기발견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4(1): 209-223.
- 김경희. 2000. 『케스탈트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상인. 2000. 『상담심리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샘가.
- 김수지, 신경림 역. 1996. 근거이론의 이해: 간호학의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 Strauss, Anselm L. & Corbin, J. 1990b.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서울: 도서출판 한울.
- 김영중. 2000. 『사회복지 조사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영진. 1991. 『그랜드 종합 주석』. 서울: 학지사.
- 김윤옥 외. 2001. 『교육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과 설계』. 서울: 문음사.
- 김형태 편. 2001.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대검찰청. 2002. 『마약류범죄백서』. 서울: 대검찰청.
- 민성길. 2000. 『최신정신의학 제4개정판』. 서울: 일조각.
- 박은영. 1998. “청소년 초기 약물남용과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유영권. 1996a. “대상관계 심리학과 목회상담 (1)”. 『기독교 사상』 제40권 제9호.
- , 1996b. “대상관계 심리학과 목회상담 (2)”. 『기독교 사상』 제40권 제10호.
- 윤명숙. 1997. “알콜중독 남편의 단주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이국진. 1997. 『NIV 한영해설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 이미영. 2000. “목회상담을 위한 심리극 활용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 석사논문(미간행).
- 이병후. 1997. 『精神醫學事典』. 서울: 일조각.
- 이장호, 김정희. 1992.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서울: 법문사.
- 이재훈, 이해리 역, 2000 프로이드이후: 현대정신분석학. Mitchell, Stephen A. and Black, Margaret. 1995. Freund and Beyond: A History of Mordern Psychoanalytic Thought.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서.

- 이정균, 김용식 편저. 2000. 『정신의학 제4판』. 서울: 일조각.
- 전우택. 1999.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연구 설계와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정형철. 1996. 『뉴 셀프성경』. 서울: 아가페서원.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은석, 김광준 공저. 200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연구보고서01-27)』.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은영. 1998. “물질사용 청소년의 인간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최해림, 장성숙 역. 2001. 최신 집단정신 치료의 이론과 실제. Yalom, Irvin.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3rd ed.). 서울: 하나의학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2.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서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현명선. 1996. “물질사용 장애 청소년의 회복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Claser, B. and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dine.
- Clair, Michael St. 1998.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이재훈 역.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서.
- Gerkin, Charles. 1984. The Living Human Documents :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Nashville : Abingdon Press.
- Gerkin, Charles. 1999. 『목회적 돌봄의 개론』. 유영권 역. 서울: 은성.
- Greenberg, Jay R. & Mitchell, Stephen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per, James M. 1990. Uncovering Shame; integration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system. New York: Norton.
- Mar, R. 1996. Research Simple.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 Scharff, Jill Savege. & Scharff, David E. 2002. 『대상관계 개인치료 I : 이론』. 이재훈, 김석도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Smedes, Lewis B. 1993. Shame and Grace; healing the shame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 Strauss, Anselm L. 1990a.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rauss, Anselm L. & Corbin, J. 1990b.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 2001.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Viney, Wayne., 1993. A History of Psychology: Ideas and Context. Boston: Allyn and Bacon.

Yalom, Irvin.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3rd ed.). New York Basic Books.

Abstract

This study is to be used for research material for pastoral counseling, by analyzing grounded-theoretically how substance abusers' awareness of self and experience of relations affects problems in abusing drug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chosen as 9 prisoners who were able to participate in group counseling, among those who were in prison for substance abuse and had more than 6 months of penal servitude left. In addition, in order to indicate counseling research methods through this study, 12 group counselings were carried out during October 24th, 2002 and February 14th, 2003 and verbatim were written out to be used as original material.

After the research material was analyzed, they could be categorized into 60 concepts on the whole from 'conflict' and 'constraining thinking' to 'rationalization' and 'avoidance'. When these concepts were organized into groups of similarity, there were all together 20 categories. From this study, it can be found that substance abusers had "problems about self" and "problems about relations". The factor which affected their use of drugs was the area of relations, where as henceforth their use of drugs, the situation in which they could not escape from the use of substances was affected by problems within the area of self.

When facing such problems as substance abuse, the pastoral counselor must create a holding environment through counseling, and perform good enough mothering by being insightful and providing active support on the problem. They must also help one's growth into "an empathizing self", "an accepting self", "a trusting self", "a hopeful self", who can empathize, accept, trust and hope, through experience in separation from the problem, conversion, meta-communication, self-rumination, relations and inspiration of hope. Likewise, the church must be able to act as a "place of growth and skill" which aids in the forming of relations and helps to be aware of self through experience in, and understanding of, relations.

Key words : structure of relations of substance abusers, theory of object relations, pastoral counseling, the grounded theory, holding environment, good enough mothering